

“농산물 선진 유통 선도 안심먹거리 제공 매진”

김용삼 ㈜호남청과 대표이사

농산물 거래 고도화 핵심 전략 수립
“적정가격 유지 소비자 이익 도모”



“농산물의 원활한 유통과 적정가격 유지로 출하 농업인과 소비자의 이익을 도모하고 국민생활 안정에 이바지하며 농산물 유통의 중추적인 기능을 수행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김용삼(사진) ㈜호남청과 대표이사는 최근 광주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관리동 대회의실에서 취임식을 갖고 “호남청과는 광주농수산물도매시장의 중심에서 농산물 유통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며 농업인과 소비자, 도매시장과 지역 경제를 연결하는 중요한 가고 역할을 해왔다”며 이같이 취임 포부를 밝혔다.

그는 ㈜호남청과의 주요 경영 방안으로 △성장 비전 수립 △협력·상생 통한 경쟁력 강화 △임직원 조직 문화 구축 △사회적 책임 경영실천 등을 설정, 추진한다.

김 대표이사는 “급변하는 농산물 유통 환경 속에서 우리는 전통적인 도매 유통을 넘어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야 하는 시대적 과제를 안고 있다”며 “국내외 농산물 시장의 변화, 소비자 트렌드 변화, 유통 디지털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어 디

지털 유통혁신, 물류 효율화, 농산물 거래 고도화를 핵심 전략으로 삼아 회사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데이터 기반 경매 시스템, 온라인 거래 활성화를 위한 운영시스템을 구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유통구조를 만들어 출하자와 소비자 모두에게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협력·상생을 위해 생산 농가와 더욱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해 우수 농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도 힘을 기울이겠다.

김 대표이사는 “도매시장은 생산자, 중도매인, 소매업자, 소비자가 유기적으로 연결된 구조를 가지고 있다”며 “중도매인 등과의 신뢰 관계를 공고히해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문화를 시킬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조했다.

그는 임직원조직문화 형성에 대해 “적극적인 의사 개진과 열린 경영을 통해 누구나 회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교육과 자기개발의 기회를 확대해 함께 성장하는 조직문화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김 대표이사는 사회적 책임과 경영실천을 위해 친환경 농산물 유통 확대, 탄소배출 절감형 물류 시스템 구축, 지역사회 공헌 활동 강화 등을 통해 사회적 가치 창출에도 앞장설 방침이다.

㈜호남청과는 지난 1991년 광주 각화농산물도매시장에서 ㈜호남농산물로 출발해 2004년 광주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개장과 함께 이전해 광주시 지정 도매법인으로 운영되고 있다. 호남청과는 앞으로도 안전하고 우수한 농산물을 유통하는데 매진할 방침이다.

김 대표이사는 “호남청과는 거래의 투명성과 공정한 거래를 통해 출하자 수취가격 안정과 신선하고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있다”며 “농산물 선진 유통 정착에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김용삼 ㈜호남청과 이사는 1995년 조선대 건축공학과를 졸업하고 2018년 5월 ㈜호남청과 이사를 거쳐 지난 3월 10일 신임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조진용 기자 jinyoung.cho@jnilbo.com



광주시장애단체육회-생생치과, 치아 건강 증진 협약

광주시장애단체육회는 지난 1일 생생치과와 치아 건강 증진 및 상호 발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사진)

이번 업무협약은 생생치과를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임직원·가족 대상 ‘진료 협력병원’으로 지정하고, 최선의 진료 제공을 통한 상호 공동이익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협약식에는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김현성 사무처장, 최기돈 체육진흥부장, 생생치과 박현우 대표원장, 이윤현 경영지원부장 등 각 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협약 내용은 △광주장애단체육회 임

직원 및 직계가족 진료비 우대 제도 실시 △광주장애단체육회 소속원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한 협력 △양 기관에 발전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협력 체계 구축이다.

김현성 광주시장장애인체육회 사무처장은 “첨단 의료기술 도입과 환자중심 치료로 치아 건강 문화에 앞장서고 있는 전문 치과병원인 생생치과 병원과 업무 협약을 하게되어 뜻 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생생치과는 치아교정, 임플란트, 신경·충치 치료 등 등 치아 건강 전문 치과다.

최동환 기자



육군 31사단, 창설 70주년 기념식 성료

광주·전남의 방위를 책임져 온 육군 제31보병사단이 창설 70주년을 맞아 지역민들과 함께 새로운 도약을 다짐했다.(사진)

육군 제31보병사단(31사단)은 지난 1일 창설 70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지난 1955년 2월20일 강원도 화천에서 창설된 31사단은 같은 해 4월5일 광주로 이전해, 70년간 지역 안보와 발전에 기여해왔다.

현재 31사단은 3293km에 이르는 해안선 경계작전, 광주·전남 15만 예비군의 동원 즉응태세 확립, 320만 사·도민의 생명과 재산 보호 등 지역 방위의 핵심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1사단은 1998년 여수·임포 지역에서 북한군 반잠수정을 격침시키는 등 15차례의 대침투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



다.

또 1988 서울올림픽, 2002 한·일월드컵, 2012 여수세계박람회 등 주요 국가급 행사들이 안전하게 개최될 수 있도록 지원했다.

창설 초기부터 지역민을 위한 대민지원에 나선 31사단은 태풍, 수해, 폭설 등 재해 복구와 AI·구제역, 코로나 방역 지원, 최근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지원 등 여러

움에 처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앞장서 왔다.

31사단은 대통령 부대표장을 총 25회 수상하며 ‘전군 최다 수상’ 기록을 세웠고, 지난해 합동참모본부 전투준비태세 우수부대와 육군본부 전투지휘훈련 최우수부대로도 선정되는 등 대한민국 최고의 지역방위사단으로 그 위상을 확립했다.

이일용 31사단장은 “사단이 창설 70주년을 맞을 수 있었던 것은 선배 전우들의 헌신과 광주·전남 지역민들의 변함없는 지지 덕분”이라며 “지역의 든든한 수호자로서 ‘강하고 스마트한 최정예부대’로 발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31사단은 창설 70주년을 맞아 국군교향악단 순회연주회와 부대개방행사 등 지역민과 함께하는 다양한 행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윤준명 기자

전남사회서비스원, ‘섬섬 프로젝트’ 이용자 모집

전남도사회서비스원(원장강성휘)은 지난달 31일부터 섬 주민의 부족한 사회서비스 격차 해소를 위한 ‘섬·섬 프로젝트’ 이용자 모집을 시작했다.(사진)

‘섬·섬 프로젝트’는 중앙사회서비스원 ‘사회서비스 공급주체 다변화 공모사업’의 일환으로 압해, 자은, 안좌, 팔금, 압태 등 신안군의 5개 읍·면 중위소득 150% 이하 연륙섬 주민에게 맞춤형 사회서비스를 우선 제공한다.

서비스 모집인원은 식생활 지원 50명, 심리정서 지원 4명, 여가생활 지원 250명 등 모두 304명이다. 이용자는 지난달 31일부터 상시 모집하고 있으며, 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증명서류를 지참해 대상 지역 읍·면사무소를 방문하거나, 사단법인 상생나무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 후 이메일(sstree@jnsec.kr)로 접수

하면 된다.

모집인원 초과 시 취약계층(차상위, 기초생활수급자, 고령자 등)을 우선 선발하며, 이용자 모집 완료 후 참여자 대상으로 개별 공지 예정이다.

전남도사회서비스원 강성휘 원장은 “급속한 고령화에 접어들고 있는 섬지역의 경우 맞춤형 통합서비스의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높아지고 있다”며 “섬지역 사회서비스 불균형 해소를 위해 섬지역 취약대응 체계를 마련하여 지속가능한 사회서비스 지원 체계 구축에 기여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섬·섬 프로젝트’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061-287-7684) 또는 사단법인 상생나무(061-282-9588)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오지현 기자

양재원 전남도새마을회 회장 산불피해 성금 전달

전라남도새마을회(회장 양재원·사진)는 지난달 31일 최근 산불 피해 집중지역(경북·경남) 복구지원과 이재민을 돕기 위한 구호활동으로 성금 3100만원을 기부했다.

전라남도새마을회는 지난 3월말부터 도회장단과 4개 회원단체, 22개시군 회장



단, 297개 읍면동, 사무직원 등이 성금을 모았다.

새마을운동중앙회를 통해 피해지역에 전달될 성금은 피해 주민들의 생필품 지원, 임시 주거시설 마련, 산

림 복구 등에 사용될 예정이다.

양재원 회장은 “산불 피해로 인해 고통받는 주민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모금운동에 나섰다”며 “앞으로도 재해 발생시 신속한 지원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김양배 기자

전화 (062)510-0412
e-메일 edit@jnilbo.com

전일 게시판

본란은 애독자를 위한 무료서비스란입니다.
(보낼곳) 광주광역시 동구 제봉로 137 전남일보 5층

담·치료 및 교육, 가정의 사후관리, 일상생활지원 등 다양한 서비스 제공(아동학대 신고전화:112), 문의:(062)675-1391

모 집 ▽BLACKYAK 남도별미산행(우리고장 근교 명산, 맛집 탐방)= 신안 지도 삼암산, 꽃봉산 산행 후 나물투어 등 맛집 탐방, 4월12일(토) 오전 7시 블랙야크 사무점, 7시10분 시청 앞, 7시30분 비엔날레 주차장. 문의 (010-3623-1685, 010-9620-2881)

알 림 ▽빛고을아동보호전문기관=학대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및 아동학대행위자를 위한 상

날씨와 생활		해돋이	해질	달돋이	달질
		06:17	18:55	09:20	--:--
오늘의 날씨 (최저/최고 기온)		자료: 기상청·웨더아이			
광주·나주 담양·화순	☀️ 6/16 무안·함평 장성·영광	☀️ 5/12	☀️ 6/12	☀️ 6/12	
순천·광양 곡성·구례	☀️ 4/15 장흥·영암 강진·완도	☀️ 3/15	☀️ 6/13	☀️ 6/13	
전국 날씨		주간 날씨			
서울	☀️ 6/16	대구	☀️ 6/16	4월(금)	5월(토)
대전	☀️ 5/17	제주	☁️ 8/14	6월(일)	7월(월)
		8월(화)			
		9월(수)			
물때		생활 기상 정보			
밀물	썰물	밀물	썰물	미세먼지	외출지수
05:11	10:59	01:20	07:56	보통	교외로
17:05	22:55	13:08	19:49	보통	드라이브를
		필요 없을 듯 합니다			